문 6. 밑줄 친 부분의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나는 구두를 벗으면서 '죽었으면 나 안 가기로 장사 지낼 사람이 없어서 시험 보는 사람더러 나오라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 공연히 ㉠ 블썸하는 심사가 일어나는 것이었다. 돈은 그달 학비까지 ㉡ 얼러서 백 원이나 보내왔다. 병인은 죽었든 살았든 하여간에 돈 백 원은 반가웠다. 시험 때는 당하여 오고 ㉢ 미구에 과세(過歲)를 하려면 돈 쓸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환이 있는 집이다 대고 철없이 돈 청구만 할 수도 없어 걱정인 판에 마침 ㉣ 생광스럽다.

- 염상섭, 「만세전」 중에서 -

- ① ㉠ :갑자기 화가 나는
- ② ㉡ :무턱대고 요구하여서
- ③ ㉢ :오래지 않아 설을 쇠려면
- ④ ㉣ :아쉬운 때 요긴하게 쓰게 되어 보람이 있다

[정답] ②

[단어의 의미-고유어] 난도 中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이다. 등장인물인 '나'는 시험을 봐야 하는 시점에 병든 사람 때문에 고국으로 오라는 전갈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돈을 '백 원'이나 보내온 것인데, 우환이 있는 집에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 어려웠던 집에서 갑자기 보내온 돈이라 반가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을 읽어냈다면 ㉡의 '얼러서'가 '무리하게 요구해서'라는 풀이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얼러서'는 '어우르다'의 준말인 '어르다'의 활용 형태라 볼 수 있다. '어우르다'는 여럿을 모아 한 덩어리나 한판이 크게 되게 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소설의 맥락은 '그달 학비와 고향으로 돌아올 돈까지 합하여'의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문 7. 다음 시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어디 빨발 구석이거나
 썩은 물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줌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들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비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 이성부, 「봄」 -

- ① 시적 대상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② 시적 대상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 ③ 시적 대상에 대해서 예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④ 시적 대상을 통해서 순리에 대한 신념을 표현하고 있다.

[정답] ②

[현대시 감상-화자] 난도 下

'봄'은 온다는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고 있다. 봄이 지닌 계절적 순환에 따른 당위적 속성, '너는 온다'와 같은 단정적 어조의 반복, '마침내'와 같은 부사어 등을 통해 봄의 도래를 확고하게 화자는 믿고 있다.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는 ②의 표현은 잘못된 진술이다.

<오답 피하기>

- ① '너'로 의인화되어 있는 '봄'은 화자가 부여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화자에게 '봄'은 기다림의 대상이며, 언젠가는 회복될 수 있는 가치라 할 수 있다. 창작 시기를 배경으로 보면 '봄'은 민주와 자유를 상징한다.
- ③ 화자는 '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드러내고,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면서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④ 계절의 순환에 의해 겨울이 끝나면 봄이 오는 것은 자연스러우며, 당위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 처음의 두 행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는 표현에서 바로 이는 나타나고 있다.

문 8.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국 한자음이 어느 시대의 중국 한자음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이견이 있다. 어느 한 시대의 한자음에 기반을 두고 있을 수도 있고, 개별 한자들이 수입된 시차에 따라서 여러 시대의 중국 한자음에 기반을 두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한국 한자음은 중국 한자음과도 다르고 일본 한자음과도 다르고 베트남 옛 한자음과도 다르다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그 기원이 된 중국 한자음과 아무런 대응 관계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어 음운체계의 영향으로 독특한 모습을 띠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한국 한자음을 영어로는 'Sino-Korean'이라고 한다. 이것은 우리말 어휘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자어가, 중국어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닌 한국어라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학교'라고 발음할 때, 중국인도 일본인도 따로 한국어를 공부하지 않는 한 그것이 'xuexiao'나 '가っこう'인 줄을 알아차리는 힘들다.

- ① 한국 한자음의 특성
- ② 한국 한자음의 역사
- ③ 한국 한자음의 기원
- ④ 한국 한자음의 계통

[정답] ①

[독해-중심 내용] 난도 下

한국의 한자음이 중국이나 일본의 한자음과 다름을 밝히고 있는 글이다. 어떻게 한국의 한자음이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중국과 일본의 한자음과는 다른 독특한 한자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한자음의 특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문 9. 다음 글이 들어갈 곳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형은 사람처럼 박자에 맞춰 춤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심지어 공연이 끝날 무렵에는 구경하던 후궁들에게 왕크를 하며 추파를 던지기까지 했다. 인형의 추태에 화가 난 목왕이 그 기술자를 죽이려고 하자 그는 서둘러 인형을 해체했고 그제야 인형의 실체가 드러났다.

(㉠) 어느 날 서쪽 지방으로 순행을 나간 목왕은 관륵산을 넘어 돌아오는 길에 재주가 뛰어난 기술자를 만났다. 목왕은 그 기술자에게 그가 만든 가장 훌륭한 물건을 가져오라고 명했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온 것은 물건이 아니었다. 이를 이상히 여긴 목왕이 왜 물건을 가지고 오지 않고 사람을 데리고 왔는지 묻자, 그는 이것이 움직이는 인형이라고 답했다. (㉡) 이에 놀란 목왕은 그 인형을 꼼꼼히 살펴봤지만 사람과 다른 점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다. (㉢) 그것은 색을 칠한 가죽과 나무로 만들어진 기계장치였다. 하지만 그것은 오장육부는 물론 뼈, 근육, 치아, 피부, 털까지 사람이 갖춰야 할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 마침내 목왕은 그에게 "자네 솜씨는 조물주에 버금가도다!"라고 크게 칭찬했다. (㉣)

- ① ㉠
- ② ㉡
- ③ ㉢
- ④ ㉣

문 14. 밑줄 친 말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① 닫혀진 마음을 열 길이 없구나.
- ② 저쪽 복도에 놓여진 화분은 엄청 예쁘구나.
- ③ 그 토의에서 궁극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결국 뭐지?
- ④ 장마로 인해 끊겨진 통신 선로가 드디어 복구되었군요.

[정답] ③

[한글 맞춤법-피동 표현]

피동 표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중 피동이 쓰일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문제인데 ③은 ‘받아들이다’라는 능동 표현에 ‘지다’라는 피동사가 결합되어 이중 피동이 아니므로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오답 피하기>

- ① ‘닫다’의 피동 ‘닫히다’. 여기에 ‘지다’라는 피동사가 더해져 이중 피동이 되고 있다. ‘닫힌’이라 써야 옳다.
- ② ‘놓다’의 피동 ‘놓이다’. 여기에 ‘지다’라는 피동사가 더해져 이중피동이 되고 있다. ‘놓인’이라 써야 옳다.
- ④ ‘끊다’의 피동 ‘끊기다’. 여기에 ‘지다’라는 피동사가 더해져 이중피동이 되고 있다. ‘끊긴’이라 써야 옳다.

문 15. 다음 시조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지아비 받 갈나 간 디 밥고리 이고 가
반상을 들오디 눈섭의 마초이다.
친코도 고마오시니 손이시나 다르실가.

- ① 夫婦愛而敬之, 相待如賓.
- ② 生我者父母, 知我者鮑子也.
- ③ 會桃李之芳園, 序天倫之樂事.
- ④ 三顧臣於草廬之中, 諮臣以當世之事.

[정답] ①

[한문-시조 관련] 난도 上

한문이 나와서 어려울 것이라고 당황한 수험생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잘 보면 매우 쉬운 문제였다. ‘지아비’ 곧 남편을 받드는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알고 부부를 언급하는 ①이 답이 됨을 금방 눈치챘다면 좋았을 문제이다. 제시된 작품은 주세붕의 연시조 ‘오륜가’ 중에서 4번째 작품이다.

- 夫婦愛而敬之(부부애이경지), 相待如賓(상대여빈):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도 공경하여 서로가 마치 손님처럼 대한다.

시조 번역문
남편이 받갈이하러 간 곳으로 밥고리를 머리에 이고 가서
남편에게 밥상을 들어 올리되, 눈섭 높이에 맞추어서 올립니다.
친하고도 고마우신 분이니 (공손히 대접해야 할) 손님과 무엇이
이 다르겠습니까?

<오답 피하기>

- ② 生我者父母, 知我者鮑子也.(생아자부모, 지아자포자야.): 나를 낳아 준 이는 부모이지만(生我者父母), 나를 알아주는 이는 바로 포숙이었다(知我者鮑者也).
- ③ 會桃李之芳園, 序天倫之樂事.(회도리지방원 서천륜지낙사): 복숭아꽃 오얏꽃 만발한 꽃동산에 모여, 형제들이 즐거운 놀이를 펼친다.(이백(李白) <춘야연도리원서(春夜宴桃李園序)>)
- ④ 三顧臣於草廬之中, 諮臣以當世之事.(삼고신어초려지중 지신이당세지사): 세 번이나 신의 초막을 찾오시고 당세의 일을 물으시니.(제갈량의 <출사표(出師表)>)

문 16. 밑줄 친 부분 중 띄어쓰기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난점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
그는 나와 동창인바 그를 잘 알고 있다.
- ② 사람은 항상 배운 대로 행동하기 마련이다.
사회의 규범대로 움직여야 타인의 지탄을 받지 않는다.
- ③ 어른들이 다 떠나시니 나도 떠날 밖에.
그밖에 더 논의할 사항은 두 가지 관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 ④ 업무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화합에도 각별히 신경을 쓴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와도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 ③

[띄어쓰기] 난도 中

‘밖에’와 ‘-근밖에’의 띄어쓰기에 대한 문제이다. 첫 문장에서는 ‘떠날 밖에’라고 붙여 썼어야 하고, 뒤의 문장에서는 ‘그 밖에’라고 띄어 썼어야 옳다.

-근밖에: 어미.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ㄹ’ 받침인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해할 자리에 쓰여, ‘-ㄹ 수밖에 다른 수가 없다’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예** 선생님이 시키는데 할밖에.

밖: 명사. 일정한 한도나 범위에 들지 않는 나머지 다른 부분이나 일. **예** 그녀는 기대 밖의 높은 점수를 얻었다.

밖에: 조사. (주로 체언이나 명사형 어미 뒤에 붙어)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의 뜻을 나타내는 말. 반드시 뒤에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따른다. **예** 공부밖에 모르는 학생

<오답 피하기>

- ① ‘바’가 의존명사로 쓰이는 것은 ‘것’ 또는 ‘곳’ 따위의 단어로 바뀌 쓸 수 있는 경우이다.
- ② ‘대로’가 의존명사로 쓰이는 경우는 앞에 관형어가 왔을 때이다. ‘배운’이 관형어이므로 ‘대로’는 의존명사로 띄어 쓴다. ‘규범’은 명사이므로 ‘대로’는 조사가 되면 앞말에 붙여 쓴다.
- ④ 첫 문장은 ‘뿐만’이 의존명사로 ‘다할’이라는 관형어와 띄어 써야 한다. 둘째 문장은 ‘젊은이들’이 명사이므로 ‘뿐만’이라는 조사가 덧붙은 것인데 붙이는 것이 맞다.

문 17. 다음 발화가 사용되는 상황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나라도 경기도 말, 충청도 말, 강원도 말, 전라도 말, 경상도 말, 제주도 말 등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지역어(地域語)가 존재하는데, 이는 해당 지역의 지리적, 정치적, 사회적 요소 및 구성 집단의 기질과 성격 등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반영되고 변모되어 온 것입니다. 따라서 각 지역어는 해당 지역과 그 구성원의 정체성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각 지역어가 가진 특성과 기능을 무시한 채 한 지역의 말만을 사용케 한다면 이는 타 지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타 지역어를 사용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원활한 소통 수단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국민을 차별할 수 있으며, 심지어 타 지역의 구성원에게 정서적 갈등과 고통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

- ① 우리말의 올바른 용법을 강조하는 강연에서
- ② 사고와 언어의 관계를 주장하는 학술 발표 대회에서
- ③ 지역어의 종류와 그 특징을 소개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 ④ 표준어 정책에 반대하고 지역어의 가치를 주장하는 변론에서

[정답] ④

[독해-상황의 추리] 난도 下

제시문은 지역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표준어만을 강요할 때 나타나게 되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진술을 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란 표준어 정책에 반대하고 지역어의 가치를 주장하는 변론이라 볼 수 있다.

문 18.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하늘에 깔아 논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걱이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죽지에 파묻고
따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2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3
— 포수는 한 덩이 낱으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 박남수, 「새」 -

- ① 시적 화자의 현실 비판적 의도가 엿보인다.
- ② ‘뜻’과 ‘낱’은 서로 대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 ③ 시적 화자는 절제된 태도로 대상을 노래하고 있다.
- ④ ‘상한 새’는 자연이나 순수한 삶의 파괴를 의미한다.

[정답] ②

[현대시 감상] 난도 中

‘새’는 순수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요, ‘낱’은 현대의 물질문명을 나타내고 있다. ‘낱’은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결코 ‘낱’은 순수를 쏠 수 없다. ‘뜻’은 순수하지 못한 것이며, ‘가식’과 같은 성격의 것이다. ‘낱’과 ‘뜻’은 순수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성격의 시어이다. 나머지는 모두 맞는 진술이다.

* 박남수의 <새>

자연이 지닌 순수한 가치의 옹호와 추구하고, 자연의 순수함을 파괴하는 인간 문명의 폭력성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다.

[시상의 흐름]

- 1연: 새의 아름다운 노래와 따스한 사랑. 자연의 순수, 아름다움.
- 2연: 억지와 가식이 없는 자연의 순수함
- 3연: 인간에 의해 파괴되는 자연의 순수성

문 19. ㉠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태평양전쟁이 격화되자 일제는 식민지 조선 내에서 황국 신민화정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일본인으로서의 투철한 국가관과 ‘국민’ 의식을 주입하는데 주력하게 되었다. (㉠) ‘국민’이란 말이 일본 내에서 실제적인 함의를 지니게 된 것은 청일전쟁 이후였다. (㉡) 이 경우 천황 아래 모두가 평등한 신민, 즉 일본의 ‘국민’으로서 재탄생하여야 한다는 당위적 명제는 다른 면에서는 ‘비국민’으로 낙인찍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조장하는 일이기도 했다. (㉢) 이러한 사정은 식민지 조선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하였다. (㉣) ‘국민’ 의식의 강조는 이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민족적인 이질감을 유지하고 있었던 조선인들에게는 심리적인 포섭의 원리인 동시에 ‘비국민’으로서의 공포감을 동반한 강력한 배제의 원리로 작용하였던 셈이다.

㉠	㉡	㉢	㉣
① 사실	그런데	그리고	요컨대
② 사실	게다가	또한	그러므로
③ 실제로	또한	게다가	요컨대
④ 실제로	그러나	그리고	그러므로

[정답] ①

[쓰기-연결 어휘] 난도 中

연결어들의 쓰임에 대해 묻고 있다.

- ㉠ ‘사실’은 ‘사실은’의 꼴로 쓰여서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일을 솔직하게 말할 때 쓰는 말이다. 여기서는 ‘사실’이라는 표현이 자연스럽다.
- * ‘실제로’는 ‘거짓이나 상상이 아니고 현실적으로.’의 의미로 제시문에서는 부적절하다.
- ㉡ ‘그런데’는 전환이나 역접의 상황에 모두 쓰일 수 있다. 여기서는 전환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1. 화제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쓰는 접속 부사.

예) 아 그렇군요. 그런데 왜 그때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예) 그들은 그 날 열한시쯤에 커다란 밤색 말이 끄는 달구지를 타고 마을로 들어섰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그들 일곱 명중에 낫익은 마을 사람 두 명이 끼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출처: 홍성원, 육이오

2.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이끌어 올 때 쓰는 접속 부사.

예) 동생은 벌써 숙제를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숙제가 많이 남아서 놀 수가 없어요.

- ㉢ ‘그리고’는 병렬적으로 연결할 때 쓰이는 순접의 접속어이다.
- ㉣ ‘요컨대’는 앞선 내용들을 요약하기 위해 쓰는 접속어이다. 앞선 ‘국민’에 대한 분석을 다음 부분에서 요약하고 있음을 통해 ‘요컨대’가 쓰여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문 20. 촌장의 태도와 관련된 사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 :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뒷골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은 거예요?

촌장 : 말해 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다 :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이리떼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고 사는 게 그게 더 좋아요?

촌장 : 애야, 이리떼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 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떼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난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게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뒷덜을 보살피고 양철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고만 할 순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난 네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저 파수꾼은 늙도록 헛복이나 친 것이 되고,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 애야,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

- 이강백, 「파수꾼」 중에서 -

① 指鹿爲馬	② 鈞而不綱
③ 隔靴搔癢	④ 牽強附會

[정답] ④

[한자성어-회곡 관련]

이강백의 <파수꾼>이란 작품에 등장하는 ‘촌장’은 구름이 몰려드는

것을 이리떼가 몰려드는 것이라고 마을 사람들을 속인다. 눈이 어두운 파수꾼들을 내세워 구름만 몰려들면 이리떼가 몰려온다고 복을 울리며 알리게끔 한 것이다. 이 사실을 파수꾼 '다'가 알게 되고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따져 묻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물음에 '존장'은 거짓을 가지고 질서를 만든 것이며, 파수꾼이 고귀하게 희생을 한 것이라고 둘러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을 맺는 한자성어는 '견강부회(牽強附會)'가 적절하다.

* 견강부회: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

* '지록위마'와 혼동되었을 문제이다. 그런데 '지록위마'는 거짓으로써 윗사람들을 농락하는 것이다. 파수꾼 '다'가 윗사람이라 볼 수 없고, 존장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므로 거리가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指鹿爲馬(지록위마): 1.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함을 이르는 말. 중국 진(秦)나라의 조고(趙高)가 자신의 권세를 시험하여 보고자 황제 호해(胡亥)에게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한 데서 유래한다. 2. 모순된 것을 끝까지 우겨서 남을 속이려는 짓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② 鈞而不綱(조이불망): 낚시질은 해도 그물질(物質)은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무슨 일이나 정도(程度)를 넘지 않는 훌륭한 인물(人物)의 태도(態度)를 이르는 말. 조이불강(鈞而不綱).
- ③ 隔靴搔癢(격화소양): 신 신고 발바닥 긁기라는 속담(俗談)의 한역으로, 마음으로는 애써 하려 하나 사물(事物)의 정통(正統)을 찌르지 못해 답답함을 이르는 말 ①어떤 일의 핵심(核心)을 찌르지 못하고 겉돌기만 하여 매우 안타까운 상태(狀態) ②또는, 답답하여 안타까움.